

모애착과 모양육스트레스가 초기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순차적 매개효과

이상미*

Ⅰ 알기 쉬운 개요

문제행동은 청소년이 겪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내면에 숨겨진 반응인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부로 드러나는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적 반응을 포함하며, 외현화 문제행동은 공격성, 비행, 과잉행동과 같은 외적 반응이 대표적이다. 특히 청소년기 초기인 중학교 입학 시기는 신체적·심리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 문제행동이 심각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제14차(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1학년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모 애착과 모 양육스트레스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내재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시켰다. 또한 모 애착은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킴으로써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이는 결국 외현화 문제행동의 감소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였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 애착이나 모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어머니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동양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lsm95@dyu.ac.kr

투 고 일 / 2024. 6. 8.

심 사 일 / 2024. 8. 9.

심사완료일 / 2024. 8. 23.

Ⅰ 초록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 애착, 모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구조적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제14차(2021년) 조사의 중학교 1학년 패널 1,348명(남학생 688명, 여학생 660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를 이용하여 부모 보고를 통해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SmartPLS 3.2.9를 이용하여 부분최소제곱법(Partial least square) 기반의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ing)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연구모형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 애착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모 양육스트레스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자아존중감은 모 애착과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은 모 양육스트레스와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모 애착은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측에 있어 모 애착, 모 양육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인들은 청소년의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문제행동의 위험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함을 본 연구 결과는 보여준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관리를 위해 모 애착을 증진하고, 모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리와 함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전략적 개입이 요구된다.

주제어: 문제행동, 모 애착,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한국아동패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로서, 나이를 기준으로 10세부터 13세 사이를 초기 청소년기라 한다. 이때에는 사춘기의 호르몬 변화와 이차성징에 따른 급격한 신체적 성장 및 성적 성숙과 함께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가 시작되며(Allen & Helen, 2024),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학업적 측면의 변화도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기 변화에 대한 성공적 적응은 초기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이 되며, 부적응은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은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크고, 스트레스와 우울감 경험의 비율이 각각 41.3%와 28.7%로 꾸준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여성가족부, 2023), 많은 청소년이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 우울 등 심리적 문제는 과민성을 높여 공격성, 사회적 위축,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의 표출로 이어질 수 있다(남은정, 배희분, 2019; Wolff & Ollendick, 2006).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기 문제행동의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므로(김영한, 조아미, 이승하, 변해진, 2013), 초기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행동의 영향요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소아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자신의 문제나 갈등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내재화 행동과 외현화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Achenbach, 1978). 내재화 문제행동은 문제나 갈등이 개인의 내적으로 향하여, 지나치게 통제되고 억압된 형태로 표현하는 행동을 말하며(예: 불안, 우울, 위축), 이와 반대로 문제나 갈등이 외적으로 향하고 통제가 안 되는 형태로 표출되는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정의한다(예: 공격성, 비행, 과잉행동). 청소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이들의 주된 사회적 환경인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이어지고(김소연, 전종설, 2015),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이봉주, 민원홍, 2015)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기 문제행동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데 강력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기부터 문제행동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애착은 애착 대상과 강한 정서적 유대를 말하며, 아동의 성장발달 성취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소개되고 있다(Bowlby, 1969). 특히 어머니는 대부분 아동의 가장 밀접한 환경이기 때문에 모 애착이 특히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어린 아동기 중심이었으며, 초기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성을 주장하고,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되며 또래와 더 친밀해지는 특성

때문에 어머니보다는 또래와의 관계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어 왔다. 하지만 Wilkinson(2004)은 청소년기에도 부모 애착이 여전히 안전기로서 작용하여 또래애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의 갈등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악화시키지만(김성애, 홍영근, 2019), 반대로 부모 애착은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강지현, 2014; 박희경, 권경인, 2012; 조미정, 김민주, 김주영, 2015; 조효진, 이은설, 2019) 부모애착은 청소년의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었다. 특히 조미정과 김민주(2014)의 연구에서 부 애착은 청소년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 문제행동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모 애착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부 애착보다는 모 애착과 강한 영향 관계가 있음을 보여, 모 애착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동은 대부분 부모의 양육을 통해 성장발달을 이루어가며, 아동의 최적의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아동의 요구에 적합한 양육이 중요하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으로, 적절한 자녀 양육을 방해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는 자녀의 문제행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긍정적 양육 태도를 저하함으로써, 자녀의 문제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이영진, 노승희, 2017).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방임적 양육태도를 강화하고(이의정, 이상균, 2009), 긍정적 양육태도를 약화함으로써(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6) 자녀의 문제행동을 촉진함이 보고되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모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문제행동과 의미 있는 관계를 나타내었지만, 부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못해 자녀의 문제행동에 있어 모 양육스트레스가 더 강조되었다(이영진, 노승희, 2017; 하문선, 2018). 그러므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서 모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는 주로 학령 전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동진, 전효정, 고은경, 2018; 송민영, 류성연, 이뿐새, 2017; 이영진, 노승희, 2017; 최효식 외, 2016). 그러나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변화는 어머니의 양육을 어렵게 해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자녀의 발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 자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청소년기는 이전보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형태로의 자기개념의 발달 시기로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시기이다(DuBois, Felner, Brand, Phillips & Lease, 1996). 특히 모 애착 관계(김선미, 박선희, 정혜숙, 김영희, 2020; 김수빈, 이숙, 2014; 박희경, 권경인, 2012; 전경숙, 이경순, 2018; 조효진, 이은설, 2019)나 모 양육스트레스(김세루, 홍지명, 홍혜경, 2010; 탁하연, 조규판, 2019)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문제행동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주요 내적 요인으로서 밝혀져 왔을 뿐 아니라(김수빈, 이숙, 2014; 이나라, 신나라, 2023; 심혜선, 전종설, 2018; 조미정 외, 2015), 부모애착이나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등(김수빈, 이숙, 2014; 박희경, 권경인, 2012; 이정애, 김가현, 2022)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경로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인이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 요인의 영향을 통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현에 의미 있는 관계를 나타낼 수 있지만 관련 연구는 아직 없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으로서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의 애착이나 양육스트레스가 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이영진, 노승희, 2017; 전경숙, 이경순, 2018; 조미정, 김민주, 2014; 하문선, 2018; Keizer, Helmerhorst & van Rijn-van Gelderen, 2019).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기의 모 애착, 모 양육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어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영향요인을 변인 간의 직접 혹은 간접경로를 통해 풍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의 모 애착, 모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직접적 관계가 있는가?

둘째,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모 애착, 모 양육스트레스와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셋째,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모 애착, 모 양육스트레스와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넷째, 초기 청소년의 모 애착, 모 양육스트레스와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행동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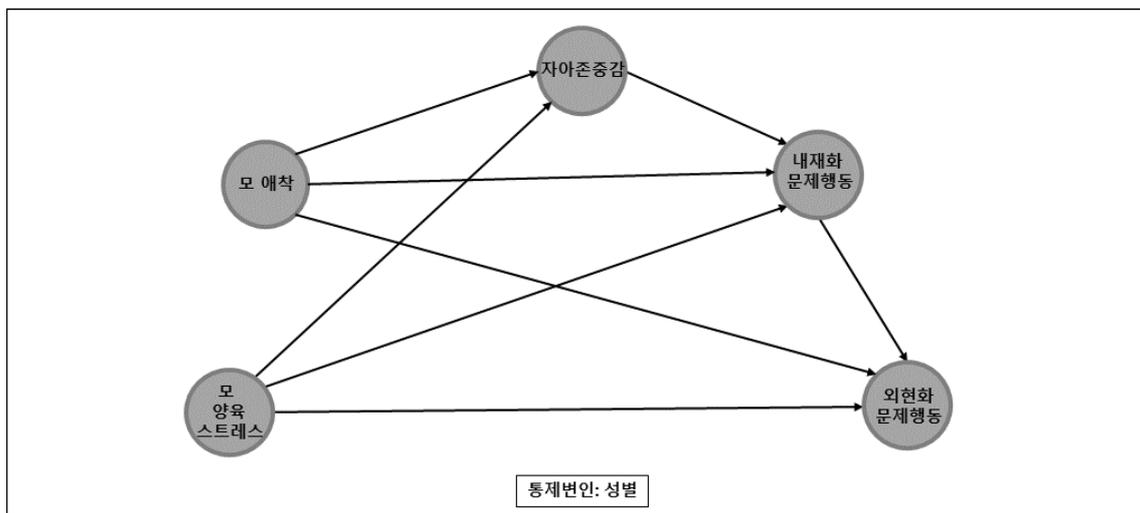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선행연구

1) 모 애착과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

애착은 Bowlby(1969)에 의해 개념화되어 영유아기를 중심으로 아동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임이 탐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고 있다(Wilkinson, 2004). 모 애착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의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수빈, 이숙, 2014), 남녀 초등학생으로 구분해 알아본 연구에서도 성별과 관계없이 모 애착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박희경, 권경인, 2012). 또한 김선미 외(2020)의 연구에서는 모 애착뿐 아니라 부 애착도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요인이었다.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와 모 애착을 구분하여 탐색한 전경숙과 이경순(2018)의 연구에서도 부와 모 애착 모두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 애착($\beta=.15$)에 비해 모 애착($\beta=.53$)이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큼을 보였다. Keizer et al.(2019)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모 애착의 질의 변화가 청소년의 성별과 관계없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부 애착의 질 관계의 변화는 여자 청소년에게만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청소년 자아존중감에 대한 모 애착의 종적 영향도 선행연구에서 탐색되었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에 이르는 동안에 부모 애착은 1년 이후의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효진, 이은설, 2019), 소아청소년기에 경험한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대학생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기백, 2013).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 모 애착은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뿐 아니라 이후의 시기에까지 종적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이었다.

모 애착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져 왔는데, 조미정 외(2015)는 모 애착이 고등학생의 부적응 행동에 부적 영향을 나타냄을 보고하였으며, 박희경과 권경인(2012)은 모 애착이 남·여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유사한 연구로서 초등학생 자녀의 문제행동에 어머니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예측요인이었다(Dubois-Comtois, Moss, Cyr & Pascuzzo, 2013). 또한 강지현(2014)의 연구에서 부모 애착이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애착의 문제행동의 종적 영향 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이전 시점의 부모 애착이 높을수록 1년

후의 청소년의 문제행동 중 하나인 비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인 간의 종적 관계도 확인되었다(조효진, 이은설, 2019; Buist, Deković, Meeus & van Aken, 2004). 문제행동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로 정의하여 살펴본 연구에서도 모 애착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모 애착이 고등학생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조미정, 김민주, 2014), 위축, 우울·불안, 신체증상의 내재화 문제와 비행,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의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낮춤을 보였다(조미정 외, 2015).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뿐 아니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전은주(2015)의 연구에서도 모 애착이 유아기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가시킴으로써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킴에 대한 간접경로도 확인하였다. 애착과 유사한 개념인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생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성별과 관계없이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중고등학생에서는 여학생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유의한 보호 요인이었다(좌현숙, 2018). 이와 반대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정 철회가 초기 청소년의 우울·불안, 위축, 신체적 증상 및 공격성의 모든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최태산, 김자경, 2015),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애정적이고 상호작용의 질이 높으면 자녀의 문제행동이 감소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서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다.

2) 모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자녀양육을 어렵게 하는 심리적 상태로 Abidin(1992)에 의해 소개되어, 아동의 심리사회성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어 왔다(Barroso, Mendez, Graziano & Bagner, 2018). 기존의 연구는 주로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어린 아동기 자녀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모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성이 확인되었다. 즉, 모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양육행동 변인과 함께 분석하였을 때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인이었다(김세루 외, 2010). 또한 부모 양육스트레스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학교적응에 대한 부적 영향으로 이어졌다(장원호, 김민진, 이지영, 권정아, 2018).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8세 아동(탁하연, 조규판, 2019), 만 4~5세 학령 전 아동(이나라, 신나나, 2023)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침이 보고되어 왔다. 모 양육스트레스는 어린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므로, 모 양육스트레스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이 어떠한지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모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문제행동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음이 어린 아동기 자녀 대상의 연구에서 주로 보고되어 왔다. 즉, 모 양육스트레스는 유아기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하민경, 2020), 아동의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탁하연, 조규판, 2019). 한국아동패널의 4차년도에 조사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6차년도의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최효식 외, 2016; 김동진 외, 2018), 만 4세에서 6세까지 아동의 모 양육스트레스와 다음 연도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유의한 정적 영향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보였고(송민영 외, 2017), 이아름(2021)의 연구에서도 모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종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혹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빈곤가족 대상의 연구 역시 모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위축, 우울, 불안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이의정, 이상균, 2009),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의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여 알아본 연구에서, 모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전체 문제행동의 유의한 정적 예측요인이었던 반면, 부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는 문제행동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이영진, 노승희, 2017), 양육스트레스의 위험이 큰 맞벌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도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아(하문선, 2018),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에게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유사한 개념인 어머니의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는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 정적 영향을 미쳤고, 가족기능이나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를 통한 간접적 영향도 확인되었다(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6). 이귀숙과 김현숙(201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어머니의 정서 조절 곤란이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으며,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선행 연구에서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3)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냄이 확인되었다. 즉, 자아존중감은 중학생의 우울·불안과 공격성(심혜선, 전종철, 2018), 고등학생의 부적응 행동(조미정 외, 2015), 초등학생의

부적응 행동(위축, 우울·불안, 공격성, 비행) (김수빈, 이숙, 2014), 청소년의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Hu & Ai, 2016). 또한 최태산과 김자경(2015)의 연구에서는 자신감과 자기조절로 측정된 자기효능감이 두 하위영역 모두 우울·불안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자신감은 신체적 증상, 위축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자기조절은 비행과 공격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에 대한 평가나 인식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아청소년기 문제행동은 일반적으로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범주화된다(Achenbach, 1978).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는 자신 내면의 문제를 내적 혹은 외적으로 각기 상반된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지만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고(이은주, 2010; Lee & Stone, 2012; Papachristou & Flouri, 2020), 한 측면의 문제가 다른 측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침이 밝혀지고 있다(김경숙, 김은향, 2019; 성다겸, 김춘경, 2019; 하민경, 2020).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공동 발달을 밝힌 이은주(201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부터 4년간,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각 초기치는 다른 영역의 문제행동을 변화율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상호종단적 영향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발달에 대해 인지능력의 발달과 함께 알아본 Papachristou와 Flouri(2020)의 연구에서는 3~14세 사이의 내재화 문제나 외현화 문제는 청소년의 인지능력과 역 상관을 나타내며 발달하고, 외현화 문제는 내재화 문제와 인지능력과 병행하여 발달한다고 하였다. 즉,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는 청소년기 다른 발달영역과의 관계 속에서도 발달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관계를 나타냈다. 두 상반된 문제행동 중에서 내재화 문제는 외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외현화 문제에 비해 발견이나 관리가 늦어지기 쉽고, 최근에는 청소년기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하고 내재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경향도 일부 보고되고 있다(질병관리청, 2024; Bor, Dean, Najman & Hayatbakhsh, 2014). 이러한 내재화 문제행동은 결국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하민경(2020)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김경숙과 김은향(2019)의 연구에서도 만 6세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매우 큰 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또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면 외현화 문제행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성다겸, 김춘경, 2019), 내재화 문제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종적 영향 관계가 있음도 밝혀져 왔다. 따라서 여러 선행연구는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해 왔다.

4)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행동의 매개 역할

자아존중감은 모 애착이나 양육스트레스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함이 일부 선행연구에서 보고됐다. 먼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수빈과 이숙(2014)의 연구에서 모 애착과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로 측정된 부적응 행동(위축, 우울·불안, 공격성, 비행)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부모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희경, 권경인, 2012), Hu와 Ai(2016)의 연구에서는 부모-청소년 관계와 청소년의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 부모 혹은 모 애착 관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긍정적 매개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한기백(2013)의 연구에서는 소아청소년기 경험한 어머니와의 긍정적 정서적 유대는 자아존중감의 매개를 통해 대학생 시기의 우울 증상에 부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 소아청소년기에 경험한 모 애착이 이후 시기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도 자아존중감이 매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자 중학생의 모 애착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정적 매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전경숙, 이경순, 2018), 자아존중감은 모 애착 청소년의 긍정적 인 행동 간의 관계 역시 매개함을 보였다.

한편 탁하연과 조규판(2019)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의 매개를 통하여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여, 모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녀의 문제행동으로까지 이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 양육스트레스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역할을 알아본 연구는 드물다. 하지만 모 양육스트레스와 유사한 자녀양육 관련 부정적 개념인 부모의 방임과 최근 우리 사회 청소년의 대표적 문제행동인 휴대전화 의존 행동 간의 정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냈다(장신재, 양혜원, 2015). 또한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우울(박애리, 2014)이나 사회적 위축(신지현, 강현아, 2018)과 같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존중감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전란영과 김희화(201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비밀관적 양육 및 과잉간섭적 양육이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낮춤으로써 문제행동을 악화시킴을 보고하여, 모 양육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를 통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매개효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데, 하민경(2020)의 연구에서는 유아기 모 양육스트레스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내재화 문제행동이 정적 매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내재적 행동에 문제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문제행동의 외현화로 이어지게 됨을 보였다. 또한 만 6세 아동의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의 응집성과 유연성으로 설명되는 가족상호작용과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내재화 문제행동이 완전 부적 매개 영향을 미쳤다(김경숙, 김은향, 2019). 즉, 가족상호작용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감소되었고, 이는 다시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됨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 내재화 문제행동은 소아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인과의 관계를 매개함을 보였다.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순차적 매개효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중다매개효과가 있었다(이다경, 염시창, 2015). 즉, 어머니의 청소년에 대한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감소시키고, 이는 결국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완화시킴을 보였다. 박애리(2014)의 연구에서는 10대 초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방임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매개경로를 통해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서, 아동학대가 청소년의 우울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가 순차적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Li et al., 2023). 즉,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며 이는 다시 내재화 문제로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우울을 악화시킴을 보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 애착 혹은 양육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순차적 매개에 의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유추할 수 있었다.

5) 성별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차이를 보였다. 소아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현상이며(Wilkinson, 2004), 김선미 외(2020)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5, 6학년의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초4-중1까지의 4년간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잠재성장곡선모형을 적용한 강지현(2014)의 연구에서, 여학생일수록 내재화 문제행동 점수가 높았고, 남학생일수록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은 자신 혹은 외부의 문제에 대해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고, 남학생은 외부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이는 여아의 빠른 언어발달로 인해 남아보다 자신의 문제를 언어로 더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어 공격적 행동 등 행동적 표현이 남아에 비해 낮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강지현(2014)의 연구에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 여학생일수록 남학생보

다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 유형의 차이에 대한 최태산과 김자경(2015)의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의 전체 평균 점수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여아는 우울·불안, 위축의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남아는 비행, 공격성의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높음을 보였다. 즉, 여아는 내재화 문제의 경향을, 남아는 외현화 문제의 경향을 보임이 강지현(2014)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고등학생의 부적응 행동의 영향 요인에 대해 성별, 자아존중감, 부애착 및 모애착을 고려한 다중회귀분석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성별은 부적응 행동의 독립적 영향요인이었으며, 남자보다 여자 청소년이 부적응 행동의 위험이 컸다(조미정 외, 2015).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14차년도(2021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아동의 성장·발달 관련 데이터를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수집할 목적으로, 층화다단계추출법을 적용하여 2008년도 출생 신생아 2,150명을 패널로 구축한 후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해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가장 최근 자료는 2021년에 조사된 14차년도 자료이며, 자료에는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표적 대상자인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14차년도 조사의 1,34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아동, 부모,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지필식 기입, 태블릿 기반 개별 인터뷰(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 TAPI)을 이용한 면접 및 관찰 조사 등의 방식으로 매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며, 2021년 조사는 7월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변수인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부모의 지필식 설문지 기입에 의해, 모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지필식 설문지 기입에 의해, 모 애착 및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에게 TAPI에 의해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panel.kicce.re.kr/pskc) 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변수는 한국아동패널의 데이터 사용자 지침서의 정의에 근거하여 이용되었으며 (육아정책연구소, 2023), 독립변수는 모 애착, 모 양육스트레스였고, 매개변수는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행동이었으며, 종속변수는 외현화 문제행동이었다. 본 연구에서 문항들이 하위개념으로 분류되지 않은 잠재변수(모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의 측정을 위해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시행하였다. 문항들을 통합하는 문항묶음을 사용하게 되면 개별문항을 그대로 분석에 포함하는 것보다 지표의 정규성과 연속성의 가정을 더 잘 만족시킬 수 있고,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특히 모형적합도와 모수추정의 안정성, 공통분산의 증가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오숙영, 2017; 이지현, 김수영, 2016), 본 연구에서는 요인묶음방법(factor-parceling approach)을 이용하여 문항묶음을 하였다. 이는 일차원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요인 적재치의 크기에 따라 문항을 정순과 역순으로 번갈아 가며 분배함으로써 문항의 고유분산을 문항묶음 간에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하는 방법이다(오숙영, 2017; Matsunaga, 2008). 또한 통제변수는 성별이었으며, 남학생은 0, 여학생은 1로 코딩하여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1) 모 애착

모 애착은 청소년이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에 대해 지각하는 정서적/인지적 차원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중에서 부모애착 척도를 이정림 외(2017)가 번역 및 타당화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의 세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 애착의 긍정적 측면을 의미하는 의사소통과 신뢰감 영역만을 포함하였다. 의사소통은 ‘어떤 일을 의논할 때, 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고려한다’를 포함한 6문항으로, 신뢰감은 ‘어머니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다’를 포함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이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각각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응답 결과를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 애착 즉, 어머니와 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이나 신뢰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감의 ‘나는 어머니에게 화가 난다.’의 한 개 역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 는 본 연구에서 .903이었다.

2) 모 양육스트레스

모 양육스트레스는 학령기 자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강희경(2003)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도구는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한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등의 1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들은 4~5문항씩 네 개 문항묶음을 하여 본 연구에서 이용되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의해 응답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 는 본 연구에서 .931이었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아동에 맞게 5문항으로 축소한 MCS(2012)의 조사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도구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나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를 포함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들은 2~3문항씩 두 개 문항묶음을 하여 본 연구에서 이용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 는 본 연구에서 .861이었다.

4)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하고 오경자와 김영아(2010)가 번역 및 표준화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6-18)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내면화되고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으로 나타내는 문제를 의미하는 불안/우울(13문항), 위축/우울(8문항), 신체증상(11문항)의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제가 부족한 행동으로 발현되는 문제를 의미하는 외현화 문제행동은 규칙위반(17문항), 공격행동(18문항)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의 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의 1점과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의 2점의 범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Statistics for Windows 28.0 (IBM Corp, Armonk, NY, USA)과 SmartPLS 3.0 (GmbH Company, Germany)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고,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는 부분최소제곱법(partial least square) 기반의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모형에서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반복 추출 횟수 2,000회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성은 95% 신뢰구간과 유의수준 $p < .05$ 에 의해 검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변수별 발생한 결측값에 대해서는 평균 대체 방법으로 처리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1,348명의 대상자 중에서, 남학생은 688명(51.0%), 여학생은 660명(49.0%)이었다. 출생순위가 첫째인 청소년인 경우가 635명(47.1%)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에 606명(45.0%)이 거주하여 대도시 484명(35.9%), 읍면 258명(19.1%)보다 많이 거주하였다. 또한 대부분 청소년이 부(1,241명, 92.4%), 모(1,324명, 98.6%)와 동거상태였으며,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구성이 1,179명(87.5%)으로 대부분이었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상태는 '매우 못산다(1점)'에서 '매우 잘산다(10점)'으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 6.29점(± 1.54)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학생	688	51.0		
	여학생	660	49.0		
출생순위	첫째	635	47.1		
	둘째	554	41.1		
	셋째 이상	159	11.8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거주지역	대도시	484	35.9		
	중소도시	606	45.0		
	읍면	258	19.1		
부모와 동거상태인 경우*	부	1,241	92.4		
	모	1,324	98.6		
가족구조	부모와 자녀 가족	1179	87.5		
	조부모 포함 가족	158	11.7		
	기타	11	0.8		
주관적 사회경제적 상태*				6.29	1.54

주: *결측값 포함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주요 변수의 평균은 모 애착은 3.84점(±0.76)에서 3.96점(±0.75), 모 양육스트레스는 2.44점(±0.73)에서 2.75점(±0.73), 자아존중감은 3.13점(±0.55)에서 3.28점(±0.56), 내재화 문제행동은 37.54점(±25.89)에서 41.40점(±25.53), 외현화 문제행동은 39.05점(±26.38)에서 44.32점(±22.10)이었다.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 애착은 모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내재화 문제행동의 위축/우울, 외현화 문제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모 양육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의 일부 영역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주요 변수의 왜도의 절댓값은 0.14에서 1.13이었고, 첨도의 절댓값은 0.03에서 0.95의 분포를 보여 각각의 정규성 기준(왜도 2미만, 첨도 7미만)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상관관계	모애착		모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모 애착	①												
	②	.699**											
모 양육스트레스	③	-.053	-.075**										
	④	-.094**	-.140**	.747**									
	⑤	-.054	-.121**	.764**	.775**								
	⑥	-.080**	-.147**	.738**	.789**	.860**							
자아존중감	⑦	.341**	.339**	-.039	-.043	-.057*	-.067*						
	⑧	.353**	.345**	-.037	-.048	-0.048	-.077**	.785**					

상관관계	모애착		모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내재화 문제행동	⑨	-.045	-.038	.193**	.208**	.180**	.181**	-.115**	-.096**					
	⑩	-.111**	-.091**	.177**	.202**	.193**	.197**	-.162**	-.121**	.528**				
	⑪	-.013	-.004	.144**	.158**	.137**	.128**	-.064*	-.047	.499**	.334**			
외현화 문제행동	⑫	-.112**	-.131**	.170**	.232**	.219**	.222**	-.066*	-.058	.451**	.382**	.329**		
	⑬	-.135**	-.121**	.181**	.253**	.204**	.207**	-.056	-.067*	.618**	.428**	.428**	.647**	
평균		3.84	3.96	2.75	2.71	2.47	2.44	3.13	3.28	37.54	41.40	37.70	44.32	39.05
표준편차		0.76	0.75	0.73	0.79	0.72	0.73	0.55	0.56	25.89	25.53	22.14	22.10	26.38
왜도		-0.57	-0.46	-0.41	-0.29	-0.19	-0.14	-0.39	-0.49	0.83	0.66	1.13	1.06	0.63
첨도		0.75	-0.15	-0.14	-0.42	-0.57	-0.73	0.45	0.35	-0.69	-0.95	-0.03	-0.48	-0.94

주: 1) ① 의사소통, ② 신뢰감, ③ 모양육스트레스1, ④ 모양육스트레스2, ⑤ 모양육스트레스3, ⑥ 모양육스트레스4, ⑦ 자아존중감1, ⑧ 자아존중감2, ⑨ 불안/우울, ⑩ 위축/우울, ⑪ 신체증상, ⑫ 규칙위반, ⑬ 공격행동
 2) * $p < .05$, ** $p < .01$

3. 측정모형의 평가

연구가설의 검증 전, 내적 일관성 신뢰도,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여 본 연구의 반영적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표 3). 먼저,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확인을 위한 Cronbach's α 는 .714 ~ .934 (기준값 .7이상), rho_A는 .745 ~ .939 (기준값 .7이상), 복합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는 .839 ~ .953 (기준값 .7이상)으로 모두 기준값을 충족하였다(신건권, 2018). 또한 수렴타당도의 확인을 위한 외부적재치(outer loading)는 .731 ~ .945 (기준값 .7이상),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는 .637 ~ .892 (기준값 .5이상)로 모두 기준값을 충족하였다(신건권, 2018).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는 Fornell과 Lacker의 기준에 따라(신건권, 2018), 잠재 변수 간 상관계수의 값보다 AVE의 제곱근 값이 모두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표 4).

표 3
 주요 변수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및 수렴타당도

잠재변수		Outer loading	Cronbach's α	rho_A	CR	AVE
모애착	①	.923	.823	.823	.919	.850
	②	.920				
모양육스트레스	③	.882	.934	.939	.953	.834
	④	.913				
	⑤	.929				
	⑥	.927				

잠재변수		Outer loading	Cronbach's α	rho_A	CR	AVE
자아존중감	⑦	.945	.880	.882	.943	.892
	⑧	.945				
내재화	⑨	.881	.714	.745	.839	.637
	⑩	.774				
	⑪	.731				
외현화	⑫	.884	.785	.814	.902	.821
	⑬	.928				

주: 1) ① 의사소통, ② 신뢰감, ③ 모양육스트레스1, ④ 모양육스트레스2, ⑤ 모양육스트레스3, ⑥ 모양육스트레스4, ⑦ 자아존중감1, ⑧ 자아존중감2, ⑨ 불안/우울, ⑩ 위축/우울, ⑪ 신체증상, ⑫ 규칙위반, ⑬ 공격행동

2) CR=Composite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표 4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

잠재변수	모애착	모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모애착	.922				
모양육스트레스	-.111	.913			
자아존중감	.396	-.059	.945		
내재화 문제행동	-.061	.217	-.120	.798	
외현화 문제행동	-.132	.230	-.063	.623	.906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본 연구 구조모형의 내분산팽창인자(internal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343에서 4.644로 기준값 5 미만을 충족하여(신건권, 2018),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R²은 자아존중감이 .156, 내재화 문제행동이 .057, 외현화 문제행동이 .404였고, 효과크기(effect sizes)인 f²은 모 애착, 모 양육스트레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이 .182, .000이었으며, 모 애착, 모 양육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이 각각 .000, .047, .011 이었고, 모 애착, 모 양육스트레스, 내재화 문제행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이 .012, .013, .573이었다.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Q²은 각각 .150, .035, .325로서 모두 기준값인 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구조모형의 예측적 적합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신건권, 2018).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표 5, 그림 2), 모 애착은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beta = .395, p < .001$),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beta = -.085, p = .001$) 미쳤지만,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모 양육스트레스는 내재화($\beta = .212, p < .001$) 및 외현화 문제행동($\beta = .087, p < .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

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108, p = .001$), 내재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beta = .600, p < .001$). 통제변수인 성별은 자아존중감($\beta = -.121, p < .001$)과 외현화 문제행동($\beta = -.052, p = .016$)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내재화 문제행동과는 유의한 영향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표 5
연구경로 계수 및 유의성 검증(직접경로)

연구경로	Path coefficient	SD	Bias-corrected 95% CI		t (p)
			2.5%	97.5%	
모애착 → 자아존중감	.395	.027	.341	.441	14.66 (<.001)
모애착 → 내재화 문제행동	.005	.031	-.050	.073	0.16 (.870)
모애착 → 외현화 문제행동	-.085	.026	-.139	-.037	3.29 (.001)
모양육스트레스 → 자아존중감	-.024	.025	-.073	.020	0.96 (.339)
모양육스트레스 → 내재화 문제행동	.212	.022	.166	.252	9.49 (<.001)
모양육스트레스 → 외현화 문제행동	.087	.019	.054	.127	4.50 (<.001)
자아존중감 → 내재화 문제행동	-.108	.032	-.174	-.048	3.38 (.001)
내재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600	.028	.538	.644	21.73 (<.001)
성별 → 자아존중감	-.121	.026	-.175	-.074	4.75 (<.001)
성별 → 내재화 문제행동	.009	.027	-.040	.064	0.33 (.743)
성별 → 외현화 문제행동	-.052	.021	-.095	-.014	2.41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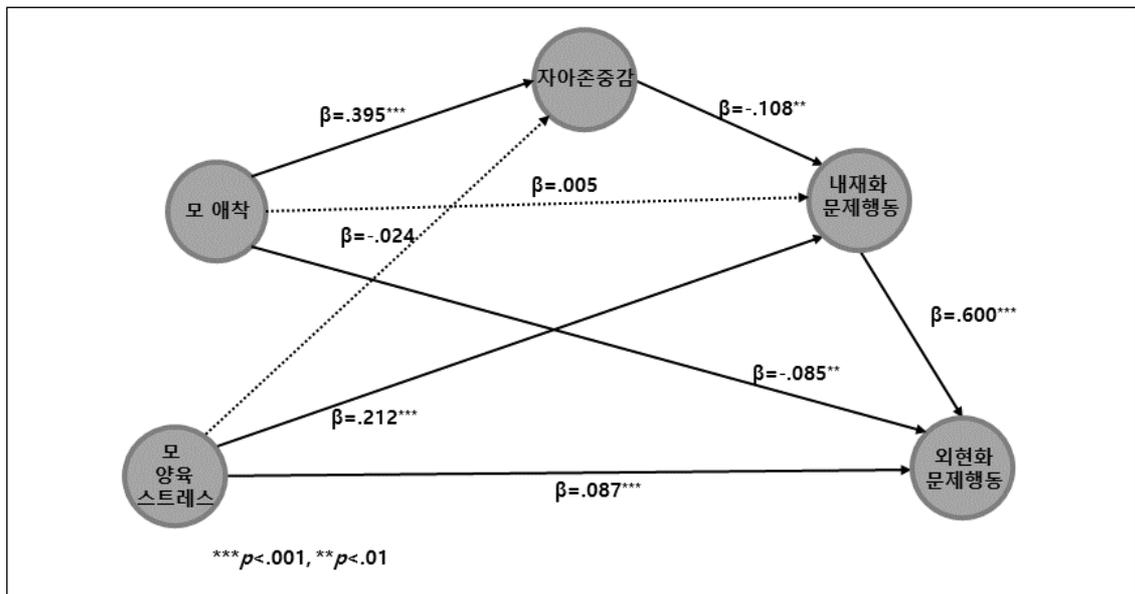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검증결과(직접경로)

구조모형의 간접경로에서(표 6), 모애착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043, p=.001$),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이중매개를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beta=-.026, p=.001$). 모양육스트레스는 내재화 문제행동의 매개를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127, p<.001$), 자아존중감은 내재화 문제행동의 매개를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eta=-.065, p=.001$). 통제변수인 성별(남자=0, 여자=1)은 자아존중감의 매개를 통해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013, p=.006$),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이중매개를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008, p=.006$).

표 6
연구경로 계수 및 유의성 검증(간접경로)

연구경로	Path coefficient	SD	Bias-corrected 95% CI		t (p)
			2.5%	97.5%	
모애착 → 자아존중감 → 내재화 문제행동	-.043	.013	-.071	-.019	3.24 (.001)
모애착 → 내재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003	.019	-.030	.043	0.16 (.871)
모양육스트레스 → 자아존중감 → 내재화 문제행동	.003	.003	-.002	.009	0.90 (.367)
모양육스트레스 → 내재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127	.016	.094	.158	7.83 (<.001)
자아존중감 → 내재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065	.019	-.103	-.028	3.35 (.001)
모애착 → 자아존중감 → 내재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026	.008	-.042	-.011	3.21 (.001)
모양육스트레스 → 자아존중감 → 내재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002	.002	-.001	.006	0.90 (.369)
성별 → 내재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005	.016	-.024	.038	0.33 (.744)
성별 → 자아존중감 → 내재화 문제행동	.013	.005	.005	.023	2.78 (.006)
성별 → 자아존중감 → 내재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008	.003	.003	.014	2.76 (.006)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14차년도(2021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348명을 대상으로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모 애착, 모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로에 대해 성별을 통제한 후 알아보았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 다음의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모 애착은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모 애착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증가함을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김선미 외, 2020; 김수빈, 이숙, 2014; 박희경, 권경인, 2012; 전경숙, 이경순, 201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초기 청소년기는 부모와 가족을 넘어 또래 집단으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됨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또래 관계의 변화가 유의한 관계가 없었던 반면에 모 애착 관계의 변화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였던 Keizer et al.(2019)의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자아개념의 형성에 있어 어머니는 초기 청소년기에 여전히 중요한 대상임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모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beta=.395$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다른 영향 관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큰 영향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의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를 통한 깊은 정서적 유대감의 경험은 초기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모 애착은 초기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모 애착은 외현화 문제행동의 감소시킴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 모 애착이 유아(전은주, 2015)나 청소년(조미정, 김민주, 2014)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결과와 일치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 애착이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직접 영향을 보이지는 못하였다. 또한 김성애와 홍영근(2019)의 연구에서는 모 애착과 상반되는 경우로서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갈등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며, 이는 부모-자녀 갈등이 자기조절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외현화 문제행동을 악화시키는 경로로도 설명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이전에 비해 부모-자녀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 초기 청소년기의 어머니와 자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신뢰감을 증진하는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초기 청소년기는 특히 급격한 변화와 혼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직면하게 되는 정서적 갈등 속에서 어머니를 애정과 신뢰의 대상으로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적용은 초기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모 양육스트레스는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증가시킴을 의미한다. 모 양육스트레스와 자녀 문제행동과의 관계는 주로 학령 전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직접적 영향 관계가 밝혀져 왔으며(김동진 외, 2018; 송민영 외, 2017; 이영진, 노승희, 2017; 최효식 외, 2016),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의한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정적 심리상태가 자녀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 역시 부정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는 건강한 성장 발달을 방해하는 약물 및 알코올 사용, 성적 위험, 또래 괴롭힘, 학업 중단 등 문제행동의 발생이나 심각성이 커지는 시기이므로(Blum, Astone, Decker & Mouli, 2014) 문제행동에 대한 접근이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접근 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모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외현화 문제($\beta=.087$)보다 내재화 문제($\beta=.212$)와 더 강한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체계적 문헌 탐색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내재화($d=0.79$) 문제보다 외현화($d=1.39$) 문제와 더 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Barroso et al., 2018),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Barroso et al.(2018)의 체계적 문헌 탐색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한 질문이 포함된 양육스트레스 척도인 Abidin(1992)의 Parenting Stress Index (PSI) 척도를 이용한 연구가 분석에 대부분 포함되었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으로도 해석되었다. 그러므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법과 내용을 고려한 추가적 연구를 통해 초기 청소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심혜선과 전종설(2018)의 결과와 유사하며, 부정적 자기개념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악화시킴을 보고한 Lee와 Stone(2012)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즉, 본 연구는 청소년이 자기 자신의 전반적인 모습에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해석될 수 있다. 초기 청소년기는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자아개념을 발전시키고 공고

히 해나가는 시기로서, 가족, 친구나 선생님 등 밀접 환경에 영향을 받아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DuBois et al., 1996).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이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변인들이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과 지지가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적용이 중요하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beta=.600$ 의 매우 큰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내재화 문제의 발현이 결국 외현화 문제로 표출됨을 보고하였던 선행연구(김경숙, 김은향, 2019; 하민경, 2020; Ritakallio et al., 200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기존의 연구는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밝혔으나,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에서도 문제행동 간의 밀접한 영향 관계를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우울이나 불안 등 내재화 문제는 초기 청소년기부터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여성가족부, 2023), 이는 밖으로 표현되지 않아 발견과 증재가 늦어질 수 있고 결국 외현화 문제행동의 증가와도 관계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조기 선별과 증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모 애착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유의한 직접 영향 관계를 나타내지는 못하였지만, 자아존중감의 매개를 통해 유의한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모 애착이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킴으로써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모 애착과 초등학생의 부적응 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완전 매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김수빈과 이숙(2014)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본 연구는 윤태희와 조영일(2014)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애착이 자아존중감의 매개를 통해 자살 생각에 종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도 유사하여, 초기 청소년의 모 애착을 통한 자아존중감의 매개 경로가 내재화 문제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강력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모 애착의 증진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함으로써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가 감소하는 경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리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행동은 모 양육스트레스와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정적 매개하였다. 모 양육스트레스는 선행연구에서 방임(이의정, 이상균, 2009), 긍정적 양육태도(최효식 외, 2016), 부부갈등(김동진 외, 2018), 아버지 양육참여의 감소(하민경, 2020) 등을 매개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즉, 모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매개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령 전 아동을 중심으로 어머니 혹은 부모 요인에 대해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 양육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행동을 악화시킴으로써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령 전 자녀의 모 양육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행동의 매개를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하민경(202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행동은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부적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재화 문제행동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감소하고, 이는 결국 외현화 문제행동의 감소로 이어지는 경로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제적 접근을 통해 내재화 문제가 외현화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대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모 애착은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모 애착이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다시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킴으로써 외현화 문제행동 경향을 완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부모의 아동학대와 우울증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순차적 매개를 확인했던 Li et al.(2023)의 결과와 유사하며, 부모의 양육태도나 모 애착과 같은 부모 요인이 청소년의 외적 심리나 행동의 문제 발현으로 이어질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순차적 매개 경로를 통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대한 전략은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의 향상, 자아존중감의 증진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감소로 이어지는 경로를 고려하여 세워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포함된 성별은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자아존중감의 매개를 통해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성별은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위험이 크며, 낮은 자아존중감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악화시키고, 이는 결국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 전략을 통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별은 문제행동 중 외현화 문제행동에만 직접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 청소년일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의 위험은 감소하는 반면, 남자 청소년일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남자 청소년은 외현화 문제에, 여자 청소년은 내재화 문제에 더 높은 안정성을 보였던 Ritakallio et al.(2008)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접근 시 성별을 고려하여 전략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모 애착은 초기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나 신뢰감

이 적고 정서적 유대의 결핍을 경험한 초기 청소년은 외현화 문제행동의 위험이 큼을 보였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해 모 애착에 초점을 둔 적극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 주된 생활과 배움의 공간인 학교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청소년에 대해 어머니와 애착 관계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 심층 인터뷰에 기반한 적합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외현화 문제행동 청소년의 모 애착을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의 상담 시 어머니를 포함하고, 어머니와 청소년 간의 관계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청소년이 어머니의 깊은 애정과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시간을 강화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모 양육스트레스는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와 직접 영향 관계가 나타나, 어머니의 자녀 양육 관련 부정 정서는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의 발현에 깊은 관계를 보였다. 초기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함께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의 전환 관련 사회적, 학업적 변화 관련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돌보아야 하는 어머니에게 청소년기 자녀의 변화는 양육을 어렵게 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녀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변화를 인정하고 보다 발전적이며, 따뜻하고 지지적인 어머니-자녀 관계 정립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으로 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모 애착과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고, 이는 또한 외현화 문제행동으로의 순차적 영향으로 이어졌다. 즉,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직·간접 및 매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초기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부모 애착 요인과 관련이 있었으며(김선미 외, 2020; 전경숙, 이경순, 2018; 조효진, 이은설, 2019), 본 연구에서는 특히 모 애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때, 어머니와의 관계의 질을 사정하고 어머니와의 애정적인 관계의 경험을 복기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모 애착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재화 문제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외현화 문제와 같이 문제가 외적으로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문제의 발견이나 관련 증재가 늦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는 외현화 문제에 매우 큰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내재화 문제에 대한 접근이 늦어지고 심각해질수록

외현화 문제로 드러날 위험이 커질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조기 발견, 접근 및 대처 전략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교사와 부모 대상의 교육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재화 문제행동을 가진 청소년이 자신의 문제를 편안하게 표현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프로그램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모 애착 및 양육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새롭게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동 시점에 조사된 변인 간의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 잠재성장모형 등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인 간의 인과 관계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해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어머니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보았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고려하여 애착이나 양육스트레스의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초기 청소년의 행동 발달에 대한 영향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 요인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강지현 (2014). 후기 아동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미치는 아동의 성별, 지각된 학업성적, 부모, 또래의 영향. **초등상담연구**, 13(1), 155-173.
- 강희경 (2003).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31-3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웹 사이트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627>에서 2024년 7월 21일 인출.
- 김경숙, 김은향 (2019). 어머니의 가족상호작용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내재화 문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9(3), 141-158. doi:10.18023/kjece.2019.39.3.006
- 김동진, 전효정, 고은경 (2018).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단기중단연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의 적용. **인지발달장애학회지**, 9(3), 27-50. doi:10.21197/JCEI.9.3.2
- 김선미, 박선희, 정혜숙, 김영희 (2020). 부모와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7(2), 69-92. doi:10.34244/JFYOYS.2020.17.2.69
- 김성애, 홍영근 (2019).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부모-자녀갈등이 청소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5(3), 1-20. doi:10.33770/JEBD.35.3.1
- 김세루, 홍지명, 홍혜경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어린이미디어연구**, 9(2), 113-132.
- 김소연, 전종설 (2015). 아동학대 경험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7(4), 387-410. doi:10.19034/KAYW.2015.17.4.17
- 김수빈, 이숙 (2014). 아동의 모애착이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질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18(2), 33-51.
- 김영한, 조아미, 이승하, 변해진 (2013).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 과제 연구** (연구보고 13-R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은정, 배희분 (2019). 청소년의 우울이 온·오프라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353-375. doi:10.22251/jlcci.2019.19.6.353

- 박애리 (2014). 지각된 방임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청소년복지연구**, 16(4), 397-416.
- 박희경, 권경인 (2012). 초등학생의 부모애착과 분리개별화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12), 301-329.
- 성다겸, 김춘경 (2019).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상호인과관계와 예측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915-934. doi:10.22251/jlcci.2019.19.14.915
- 송민영, 류성연, 이분새 (2017).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내재화문제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효과 검증. **육아지원연구**, 12(4), 65-93. doi:10.16978/ECEC.2017.12.4.003
- 신건권 (2018). **SmartPLS3.0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신지현, 강현아 (2018).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자녀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4, 1-22. doi:10.20993/jSSW.44.1
- 심혜선, 전종설 (2018).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1), 275-300. doi:10.19034/KAYW.2018.20.1.12
- 여성가족부 (2023). 2023 청소년 통계. 여성가족부 웹 사이트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307에서 2024년 5월 2일 인출.
-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6). 부모의 우울, 지각된 가족기능,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2), 243-269. doi:10.18023/KJECE.2016.36.2.011
- 오경자, 김영아 (2010).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서울: 휴노컨설팅.
- 오숙영 (2017).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분석에서 다차원 척도에 대한 다양한 문항 묶음방법 적용연구. **교육방법연구**, 29(2), 313-345.
- 육아정책연구소 (2023). **한국아동패널 제8차~14차 조사 데이터 사용자 지침서**. 한국아동패널 웹사이트 https://panel.kicce.re.kr/pskc/board/index.do?menu_idx=43&manage_idx=27에서 2024년 5월 2일 인출.
- 윤태희, 조영일 (2014). 부모-자녀 애착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종단적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61-87.
- 이귀숙, 김현숙 (2016). 모의 정서조절곤란이 청소년 자녀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학연구**, 23(12), 245-276. doi:10.21509/KJYS.2016.12.23.12.245
- 이나라, 신나나 (2023).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자아분화,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44(4), 375-387. doi:10.5723/kjcs.2023.44.4.375

- 이다경, 염시창 (2015). 청소년이 지각한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중다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2), 277-298. doi:10.35151/kyci.2015.23.2.013
- 이봉주, 민원홍 (2015). 아동,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청소년학연구**, 22(8), 335-361.
- 이아름 (202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유아 문제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 **상담심리교육복지**, 8(3), 117-134. doi:10.20496/cpew.2021.8.3.117
- 이영진, 노승희 (2017).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1(4), 301-324.
- 이은주 (2010).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종단적 공동발달: 잠재성장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1(4), 171-200.
- 이의정, 이상균 (2009). 빈곤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 방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 14, 113-138.
- 이정림, 김지현, 이규림, 조혜주, 임종한, Carlo, G (2017). **한국 어린이 성장발달 코호트 모형 구축 및 타당화 연구** (연구보고 2017-21).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애, 김가현 (2022).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 그릿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2(4), 209-227. doi:10.15709/hswr.2022.42.4.209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doi:10.22257/kjp.2016.06.35.2.327
- 장신재, 양혜원 (2015). 부모의 방임과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 관계에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1(2), 133-156. doi:10.18859/ssrr.2015.05.31.2.133
- 장원호, 김민진, 이지영, 권정아 (2018).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8(4), 379-398. doi:10.18023/kjece.2018.38.4.015
- 전경숙, 이경순 (2018). 남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과 학교적응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4(1), 327-349. doi:10.24159/joec.2018.24.1.327
- 전란영, 김희화 (2016).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 및 과잉간섭적 양육이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4(2), 57-67.
- 전은주 (2015).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유형, 양육효능감 간의 구조모형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9(4), 391-412.
- 조미정, 김민주, 김주영 (201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응행동 간 관계에서 부와 모애착의 조절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7), 4586-4594. doi:10.5762/KAIS.2015.16.7.4586

- 조미정, 김민주 (2014). 청소년 내재화/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성별차이 분석. *비판사회정책*, 45, 267-303.
- 조효진, 이은설 (2019).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비행 간의 종단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7), 1171-1194. doi:10.22251/jlcci.2019.19.17.1171
- 질병관리청 (2024). 청소년 현재 흡연율 추이, 2014-2023년. *주간 건강과 질병*, 17(26), 1171-1172. doi:10.56786/PHWR.2024.17.26.4
- 좌현숙 (2018).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행동: 성차와 연령차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5(2), 219-245. doi:10.21509/KJYS.2018.02.25.2.219
- 최태산, 김자경 (2015). 모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8), 363-384.
-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6).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유아교육학논집*, 20(2), 495-517.
- 탁하연, 조규판 (2019).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2), 207-226. doi:10.22251/jlcci.2019.19.22.207
- 하문선 (2018). 맞벌이 부모의 일-가족 갈등,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9(3), 573-600. doi:10.15753/aje.2018.09.19.3.573
- 하민경 (2020).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유아 내재화 문제행동, 아버지 양육참여와 유아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7), 905-925. doi:10.22251/jlcci.2020.20.7.905
- 한기백 (2013).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성인애착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4(5), 3065-3087. doi:10.15703/kjc.14.5.201310.3065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doi:10.1207/s15374424jccp2104_12
- Achenbach, T. M. (1978). The Child Behavior Profile: I. Boys aged 6-11.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3), 478-488. doi:10.1037/0022-006X.46.3.478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Allen, B., & Helen, W. (2024, April 29). Stages of Adolescenc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Retrieved July 21, 2024, from <https://www.healthychildren.org/English/ages-stages/teen/Pages/Stages-of-Adolescence.aspx>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doi:10.1007/BF02202939
- Barroso, N. E., Mendez, L., Graziano, P. A., & Bagner, D. M. (2018). Parenting Stress through the Lens of Different Clinical Groups: a Systematic Review &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6*(3), 449-461. doi:10.1007/s10802-017-0313-6
- Blum, R. W., Astone, N. M., Decker, M. R., & Mouli, V. C. (2014). A conceptual framework for early adolescence: a platform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and Health*, *26*(3), 321-331. doi:10.1515/ijamh-2013-0327
- Bor, W., Dean, A. J., Najman, J., & Hayatbakhsh, R. (2014). Are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problems increasing in the 21st century? A systematic review.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8*(7), 606-616. doi:10.1177/0004867414533834
- Buist, K. L., Deković, M., Meeus, W., & van Aken, M. A. (2004).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early adolescent attachment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Journal of Adolescence*, *27*(3), 251-266. doi:10.1016/j.adolescence.2003.11.012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NY: Basic Books.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doi:10.1037/1082-989X.1.1.16
-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Phillips, R. S., & Lease, A. M. (1996). Early adolescent self-esteem: A developmental-ecological framework and assessment strateg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6*(4), 543-579. doi:10.1023/A:1022831006887

- Dubois-Comtois, K., Moss, E., Cyr, C., & Pascuzzo, K. (2013). Behavior problems in middle childhood: The predictive role of maternal distress, child attachment,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1*, 1311-1324. doi:10.1007/s10802-013-9764-6
- Hu, J., & Ai, H. (2016). Self-esteem mediates the effect of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on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1*(6), 897-904. doi:10.1177/1359105314541315
- Keizer, R., Helmerhorst, K. O., & van Rijn-van Gelderen, L. (2019). Perceived quality of the mother-adolescent and father-adolescent attachment relationship and adolescents'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8*(6), 1203-1217. doi:10.1007/s10964-019-01007-0
- Lee, E. J., & Stone, S. I. (2012). Co-occurring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self-concep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6), 717-731. doi:10.1007/s10964-011-9700-4
- Li, W., Lai, W., Guo, L., Wang, W., Li, X., Zhu, L., Shi, J., Teopiz, K. M., McIntyre, R. S., & Lu, C. (2023). Childhood maltreatment and subsequent depressive symptoms: a prospective study of the sequential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and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s. *BMC psychiatry*, *23*(1), 179. doi:10.1186/s12888-023-04654-7
- Matsunaga, M. (2008).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primer. *Communication Method and Measures*, *2*(4), 260-293.
- MCS (2012).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https://cls.ucl.ac.uk/wp-content/uploads/2017/07/MCS5_MS_Child-Self-Completion-Questionnaire_CORE_ESNI_FINAL_PRINT.pdf 에서 2021년 7월20일 최종 인출
- Papachristou, E., & Flouri, E. (2020). The codevelopment of internalizing symptoms, externalizing symptoms, and cognitive ability across childhood and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2*(4), 1375-1389. doi:10.1017/S0954579419001330
- Ritakallio, M., Koivisto, A. M., von der Pahlen, B., Pelkonen, M., Marttunen, M., & Kaltiala-Heino, R. (2008). Continuity, comorbidity and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ur in middle adolescence: a 2-year prospective follow-up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31*(3), 355-370. doi:10.1016/j.adolescence.2007.06.00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ilkinson, R. B. (2004). The role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in the psychological health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6), 479-493. doi:10.1023/B:JOYO.0000048063.59425.20
- Wolff, J. C., & Ollendick, T. H. (2006). The comorbidity of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9(3-4), 201-220. doi:10.1007/s10567-006-0011-3

ABSTRACT

The influence of maternal attachment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early adolescent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Lee, Sangmi*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ttachment, maternal parenting stress, self-esteem,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at influence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early adolescents. We used data from the 14th (2021)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1,348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688 boys and 660 girl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ased on partial least squares using Smart PLS 3.2.9, and bootstrapping was used to deter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research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aternal attachment had a direct effect on self-esteem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had a direct effect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addition, self-esteem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ttachment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Lastly, we found that maternal attachment negatively affecte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through a sequential mediation path involving self-esteem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This study suggests that strategic intervention is required to improve maternal attachment, alleviate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enhance adolescent self-esteem to manage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early adolescents.

Key Words: problem behaviors, maternal attachment, parenting stress, self-esteem,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 Dongyang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Associate Professor